

아파트 지하수 마셔도 되나?

광주 공동주택 수질관리 '사각' ... 여름철 식중독 등 우려

동구 9·서구 5곳서 사용 ... 나머지 현황조사 파악 안돼

광주지역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다.

공동주택단지의 지하수는 관련 법상 수질검사 의무기간이 2~3년으로 너무 길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근 주민이나 상가들이 지하수를 용도 구분없이 끌어다 쓰는 사례도 많아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지역에서 현재 지하수를 사용 중인 공동주택은 동구 9곳(음용수 4곳, 비음용수 5곳), 서구 5곳(음용수 1곳, 비음용수 4곳) 등이다. 나머지 남구·북구·광산구 등은 아예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또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사용 중인 공동주택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단지는 대수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수법은 매년 30t 이상 사용할 경우 2년에 한 번, 30t 미만인 경우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사항목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월 10여 건 정도의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비용에 따라 12개 항목에서 46개 항목까지 분류돼 있으나 사용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수 수질 검사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지하수가 음용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구 한 아파트 주민 이모(45)씨는 "아파트 주민은 물론 주변 음식점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검사가 안 된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부랴부랴 검사를 의뢰했다"며 "25만 원의 비용 부담도 있고, 지하수에 대해 위험

성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생수 구입에 부담을 느낀 공동주택 주변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지만 이를 따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는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대부분 음용수보다는 조경수나 청소 등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승진누락 소송 묘한 승소

"인사 방치는 잘못, 승진 안시킨건 별개의 문제"

대법 판결 ... 광주시청 공무원 3년 소송 일단락

광주시의 일방적인 임용 철회로 승진에서 누락된 60대 공무원이 3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정년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승진은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정운재(60)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광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정씨를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해 이를 공표까지 한 만큼 정씨는 승진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시는 이를 수용 또는 거부할 응답의무가 있다"며 "시가 정씨의 승진임용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정씨를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지까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이번 판결은 정씨에게 실의를 주지 못하게 됐다. 정씨로서는 광주시가 자신을 승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데다 정년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기 때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소송=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광주시는 2004년 3월 정씨를 3급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발령했으나 비엔날레 이사장 등의 요구에 따라 정씨에 대해 파견복귀를 명하고 그해 7월 말 승진임용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정씨는 2006년 3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내고, 지난해 6월에는 이 소송이 길어져 임박한 정년을 호적에 따라 맞추는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했으며 두 소송 모두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치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867) 김장두



해병대 일병 휴가중 자살

28일 오전 9시20분께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팔각정에서 해병대 소속 A(19)일병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공익요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일병은 무릎과 정강이에서 가벼운 멍이 발견됐고, 지난 26일 휴가를 나온 뒤 29일 복귀할 예정이었다. A일병은 "군 생활이 힘들다"고 가족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차량 페인트 조각으로 뺑소니 용의자 잡았다

광양경찰, 30대 검거

30대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서 떨어져나간 페인트 조각 때문에 달마가 잡혔다.

광양경찰은 28일 김모(38)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일 새벽 광양읍 덕례리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김모(3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떨어진 자주색 차량용 페인트(가로 2.5cm, 세로 2cm)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 가해 차량의 차종이 아벨라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발생장소로부터 200m 전방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끝에 광양권 내에 차적을 둔 자주색 아벨라 차량으로 압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21일 자신의 누나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전북 남원과 전주에서 각각 차량 유희와 보닛을 교체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차량 페인트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을 압축하고 사고 발생을 전·후로 말소나 이전된 차량까지 치밀하게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동부취재본부 박영진기자 pyj4079@



심폐소생술 이렇게

28일 광주시 용봉동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청소년 민방위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소방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을 익히고 있다. 북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초·중학생 250명이 참가했다. /위자라기자 jrwi@kwangju.co.kr

채용 대가 수천만원 '뒷돈'

목포 노인요양원장 영장

경찰, 감독소홀 공무원 입건

목포경찰은 28일 요양보호사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모 노인전문요양원장 이모(여·40)씨

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요양원 급여 지급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목포시 공무원 김모(여·41)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0월 목포에 요양원을 개소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채용해 준다'는 명목으로 구직자 11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1천만원씩 모두 6천300만원을 받아 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나 연수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장기요양급여 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대성기자 dss@kwangju.co.kr

특하면 폭력 ... 막가는 10대들

가출소년 돈 빼앗고 폭행

광주서부경찰은 28일 돈을 빌려주고 턱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한 뒤 이를 갚지 않자 10대 소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김모(16)군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6시에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가출한 K(15)양에게 빌려준 돈 3만원을 포함해 현금 8만원을 빼앗은 뒤 둔기로 K양의 가슴과 손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날 밤 11시경 같은 장소로 K양을 또 다시 불러내 "8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

행인 때리고 경찰에 발길질

광주북부경찰은 28일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김모(17)양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이날 새벽 0시20분께 북구 두암동 F마트 앞길에서 두암지구대 소속 C경사의 다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며 길가던 김모(24)씨를 때린 남자친구 정모(19)군을 신고 받고 출동한 C경사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x×야"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왜 여자수 만져" 나이تر서 말다툼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가수 성추행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손님과 동료가수가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남모(35)씨는 28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치평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공연을 하던 중 춤을 추던 손님 심모(27)씨가 동료 여가수 W(28)씨의 허벅지를 더듬는 것을 보고 W씨의 가슴을 한차례 걷어차겠다는 것.

○~남씨는 경찰에서 "심씨가 동료 여가수를 성추행하는 것을 보고 가볍게 밟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심씨는 "홍경계 춤을 추다가 손을 뻗었는데, 우연히 W씨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반박.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미치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 의 희소식

고령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문제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www.dftubing.com

국내최초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내수 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첨단 기술 개발
2.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3.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4.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5.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6.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7.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8.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9.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10. 방수 강판 시공으로 누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합정권역 무료!!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살피는 특수 방수 시스템!

민통 갈라강판 지붕 개량

문의 0011863-9221
010-4984-7601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확실한 대책!!!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ingang.go.kr

3만원의 행복

강남구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체험할 기회

연회비 3만원에 7,500강의 무료 수강

- 전국유명대학수강료, 강의자료 등 무료로 교재
- 무료수강료 1회 수강료 3000원 (1인당 1500원)
- 전국유명대학강의 '공부방법' 강의 제공
- 무료 내신, 모의고사, 내신자료 제공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등 전국 100여개 대학

문의 1577-9100